

##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

- 읽을 말씀 계 14:14-2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8장의 세 가지 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4장에 왜 재림 때 일어날 곡식추수와 포도추수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1) 곡식추수는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버트 마운스는 곡식추수를 다가올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그림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그랜트 오즈번, 이필찬 교수님, 이동원 목사님 등 많은 분들이 곡식추수를 휴거로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전쟁을 뜻하는 포도추수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림 때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성도들과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추수에 비유하면 알곡이고, 결혼에 비유하면 신부입니다. 그러니 14장 15절의 곡식이 익은 것(알곡이 된 것)과 19장 7절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 것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에도 곡식추수와 포도추수가 나오고 19장에도 곡식추수와 일치하는 어린양 혼인잔치와 포도추수와 일치하는 아마겟돈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곡식추수는 심판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휴거를 의미합니다.

### (2) 곡식추수는 휴거를 의미한다.

포도추수가 아마겟돈전쟁을 뜻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전쟁에 대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9:15). 이처럼 포도추수가 심판을 상징하게 된 것은,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곡식추수와 달리 수확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을 때 나오는 포도즙이 피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곡식추수가 과연 휴거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는데, 보쿰은 곡식추수를 열방의 백성들이 회심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쿰의 해석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영원한 복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키너는 “예언 전통에서 복음은 ... 대적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나 1:15). 문맥으로 볼 때 이 천사는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계 14:7)”고 썼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한 복음” 의 의미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대환난을 포함하여 재림 직전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단 12:3, 마 24:14).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복음” 에는 부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뒤에 나오는 곡식추수가 영혼들의 회심(대추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곡식추수는 같은 장 4절의 “처음 익은 열매” 와 대비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 라 불리는 십사만 사천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후, 재림 때 광야로 피신했던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추수” 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곡식추수이고 휴거를 뜻합니다.

### (3) 드디어 하나님의 신원이 시작되다!

재림은 19장에 나오는데 왜 14장에 두 가지 추수가 기록되어 있나? 이 의문은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 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나옵니다(9-10절). 이들의 호소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그들의 피를 신원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11절). 그럼 순교자의 수는 언제 찰까요? 적그리스가 일으키는 대환난 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그 수가 찹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13-14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4장 5절에서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다음 구절인 6-7절에서 심판(신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8-11절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두 가지 추수가 나

오고, 천사가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15:1). 이 일곱 대접이 바로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어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15:2-4). 이것이 옳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었는데, 15장 1절에 진노의 대접이 나오고 2절에서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수가 잦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일곱 대접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으니(계15:1) 이것이 하나님의 신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대접 뒤에 17-19장이 더 있지만, 6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전쟁과 관련이 있고, 7째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16:12-21). 그러므로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그 증거로, 16장 4절에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을 때 피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16:5-6). 분명히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신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 위에 있었던 제단이 **“그러하다.”** 라고 하며 앞에서 천사가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7절). 따라서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신원이 성취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15-19장까지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실제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오. 14장에서 순교자의 수가 잦고, 그래서 15-19장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순교자의 피를 신원해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즉 15-19장 전체가 이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 대환난은 15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하다.

14장 6절 이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이고, 하나님의 신원은 15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환난은 15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곡식추수와 포도추수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와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큰 주제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14장 마지막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패턴대로 전환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휴거 될 것이냐? 아마겟돈전쟁을 통해 멸망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듯

이, 이후 일어날 가장 극적인 두 사건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1절-19장 21절까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19장이 아닌 14장에 재림 때 일어날 휴거와 아마겟돈전쟁을 뜻하는 두 비유를 먼저 기록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는 증거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면 먼저, 14장 6절 이후 계속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는 지금부터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의 ‘바벨론이 무너졌다’ 는 것도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9-12절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미래(재림)에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지금 이후로’ 역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미에 나오는 두 추수가 미래(재림)에 발생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도 흐름상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표기된 이 단원의 제목이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 입니다. 두 가지 추수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해석이 옳습니다.

한편, 계시록을 읽을 때 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계 1:4, 3:1,5:6) – 한 분이신 성령님을 왜 일곱 영이라 칭한 것일까요? “**일곱 뿔과 일곱 눈**”(5:6)은 예수님이 완전한 힘과 권세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일곱은 완전수이므로 일곱 영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다른 영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한 영 즉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땅의 상인들의 상품 목록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계18:11-13) – 이것은 몸을 종으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 아니라 “**몸과 사람의 영혼들**” 입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을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 ● 나눔과 적용

곡식추수는 휴거를, 포도추수는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과 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매일의 선택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시간인지 돌아보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봅시다.